

애국가

이필균 (학부 주사)

- | | | |
|---|---|--|
| 1. 아세아에 대조선이
자주도록 분명하다
애야애야 애국하세
나라위해 죽어보세 | 2. 분골하고 쇠신토록
충군하고 애국하세
우리정부 높여주고
우리국민 도와주세 | 3. 깊은잠을 어서 깨어
부국강병 진보하세
남의천대 받게되니
후회막급 없이하세 |
| 4. 합심하고 일심되어
서세동점 막아보세
사농공상 진력하여
사람마다 자유하세 | 5. 남녀없이 입학하여
세계학식 배워보자
교육해야 개화되고
개화해야 사람되세 | 6. 팔괘극기 높이달아
육대주에 횡횡하세
산이높고 물이깊게
우리마음 맹세하세 |

해설 : 풍운의 한말 이래 해방 전야까지 민중의 충경이 담겨있는 서로 다른 애국가들이 십여편 가까이 구전되어 나라 잃은 백성의 한을 노래한 바 있다. 현재 국가로 제정되어 불려지고 있는 윤치호 작사,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는 작사·작곡자들이 친일행적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가로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것 또한 아픈 현실이다. 위 애국가는 한말 학보주사였던 이필균 선생이 작사한 노래에 담긴 진보적 역사관이 후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자주와 부국강병, 남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노래한 것이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한다.

출전 _ 독립 신문 1권 15호(1896. 5. 9.)

2011 1*2

통권 55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 04 권두언 _
강점 1백년 청산도 없이
‘한·미·일’ 공조는 무슨 소리냐
| 김자동



- 06 독립운동 _
김상옥 의사
| 김상옥, 나석주 의사 기념사업회



- 18 특별기고 _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을 본다
| 이종호
- 26 광화문 어귀에서 _
어머니의 긴 여정... 그리고 한맺힌 3가지 사연
| 우원식
- 30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_
〈저개발의 기억〉, 쿠바 혁명의 또 다른 기억들
| 이두희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류동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4 100년편지 _ 1
백범선생께 드리는 편지
| 이영후

36 100년편지 _ 2
내 마음속의 독립운동가
| 오지혜

40 순국선열 · 애국지사 58명 포상

4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제3기 임원명단

42 독립정신 이모저모

44 임정서가 _
자랑스럽다! 안중근 의사 자료집 다섯 권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강점 1백년 청산도 없이 '한·미·일' 공조는 무슨 소리냐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2010년을 보내며 이제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나라를 완전히 잃은지 꼭 1백년이 되는 지난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치욕의 1년이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으로 한국에서 쫓겨났으나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표류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하나는 전쟁직후 일본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일 문제의 정의스러운 해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분단되어 있었다는 우리 자체의 약점 때문이었다. 물론 분단 자체도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일 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이루도록 한국정부에 무형의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한편 61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여 정통성이 없는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했다. 이 정부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당시 어려운 경제형편에 명목이야 어떻든간에 우선 돈 좀 얻어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그 자체가 매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1905)에서부터 1910년 우리 나라를 강제로 병탄한 합병조약에 이르는 모든 조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 ‘기본조약’에서는 ‘이미 무효’라는 말로 어물적 넘겼다. 그리고 이 조약은 마치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만한 과거가 없었던 것 같이 새로 국교를 맺었다. 일제의 불법과 압박과 착취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금 대신 이른바 ‘독립 축하금’이란 명목으로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얻었다. 이 차관들은 결국 일본 상품의 연지불구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군사정권은 뿐만 아니라 이로서 민간인들의 개인 청구권마저도 포기했다.

현정부의 지지기반인 뉴라이트집단은 일본의 우파들과 ‘일본의 한국통치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합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한국민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제대로 과거사에 관하여 사과한 일이 없으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일방적인 역조무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한·미·일’ 공조에 관한 기사를 자주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된 듯 한 세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마땅하다. 최근 중국에서 6자회담을 통하여 요즘 남쪽의 군사훈련과 북측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어난 긴장관계를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하여 ‘한·미·일’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6자회담에 있어서 일본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문제를 들고 나온 일도 있다. 그것도 ‘핵억제’와 관계가 있던 말인가? 20세기 전반에 동포 수십만을 강제로 전쟁터와 공장으로 끌고 갔던 일본이 당치도 아닌 장소에서까지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하여 떠들어 대는 것은 뻔뻔스러운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단과 전쟁에 관련된 미·소·중 3개국과 당사자인 남·북한 외에 일본이 6자회담의 일원이 된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요한 외교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매사 ‘공조’를 하는 태도는 우리 국익에 도움 될 것도 없으며 국민의 감정에는 분명 어긋난다고 본다. 금년에는 실속없는 ‘한·일 공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

서울 한복판 항일 시가전의 용장

순국선열 김상옥 의사의 항일 독립투쟁

김상옥 · 나석주 의사 기념사업회



▲ 김상옥의사

김상옥 의사(金相玉 1890-1923)는 애국계몽운동, 물산장려운동, 3.1운동 참여,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학생운동, 무장 의열투쟁 등 독립운동의 거의 모든 방략을 실천하며 민족의식의 양양과 항일독립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특히 1923년 1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일 간격으로 벌인 3 차례의 서울 시가전은 암울했던 우리 겨레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의열투쟁이었습니다.

3 차례의 서울 시가전

김상옥 의사가 결행한 세 차례의 항일(抗日) 서울 시가전(市街戰)은 중국 상해 망명지에서 임시정부 수뇌부(김 구, 이시영, 이동휘, 조소앙, 신익희 등)와 협의 하에 총독처단 - 총독부 및 조선은행 폭파를 위한 의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1차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 폭파, 2차 1월 17일 후암동총격전, 3차 1월 22일 효제동 대격전 등 5일 간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① 무력투쟁을 위한 비밀기지인 '한당 서울혁명사령부' 를 은신처인 삼판동(현 후암동)403번지 매제 고봉근 가(家)에 두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경 및 일지(日紙) 매일신보 사원 등 10여명을 응징하여 일제(日帝)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는데, 제일 먼저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것은 총독부 폭파용 폭탄의 성능을 시험하고 또 자신과 가족,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곳에서 당한 곤욕을 설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 탄압의 전담서였습니다.

② 후암동 총격전은 도쿄 출장차 부산으로 떠나는 '사이토' 총독을 서울역에서 처단키 위해 동지들을 전날 서울역 일대에 배치하는 등 저격준비를 완료하고 가까운 후암동의 매제 집에 은신 중, 당일 새벽 5시에 형사대 17명이 기습해서 벌어진 시가전이었습니다. 형사 4명을 처단하며 포위망을 뚫은 김의사는 눈덮힌 남산을 맨발로 종주해서 왕십리 안정사에서 승복을 빌려 변장하고, 짚신을 거꾸로 신고 하산하여, 수유리를 우회 탈출, 효제동의 김의사 생가 옆집인 이혜수 동지의 집으로 은신하였습니다.

③ 1923년 당시 효제동 대격전 현장(72~76-2번지 일대)은 채소밭으로 둘러싸인 기와집 다섯 채였습니다. 이혜수 동지의 집에서 동상을 치료하며 다른 곳으로 피신을 준비하던 중, 은신처를 탐지한 일본 군경 1천여 명이 새벽 5시부터 삼엄한 경계를 서며, 눈덮힌 마을을 5백여 명이 네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열흘 전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닷새 전에는 후암동에서 왜경 4명을 처단, 포위망을 뚫고 눈 덮힌 남산을 종주해서 사라진 김상옥의사를 이번에는 실수 없이 제압하고자 제 1진 권총 형사대, 제 2진 장총 형사대, 제 3진 기마 경찰대, 제 4진 헌병 차량기동대로 포위했지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손에 권총을 든 김의사의 초인적인 사격 솜씨와 일기당천의 담력, 다섯 집을 넘나든 날쌔 몸놀림에 그들은 16여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무려 3시간 이상 쫓겨 매고 있었습니다. 김의사의 눈에 띄는 적은 모조리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백발백중의 불을 뿜던 12연발, 8연발의 쌍권총과 탄대의 탄환이 다하여 마지막 일탄으로 김의사가 자결한 연후에야 '일대 천'의 시가전이 끝났던 것입니다.

김상옥 의사가 펼친 세 차례의 시가전은 만주에서 독립군의 대부대 작전으로 거둔 성과에 못지않은 의미를 지니는 쾌거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3.1운동 3년 10개월 뒤의 일로 당시 일제(日帝)가 바깥 세상에 대하여 3.1운동을 평화적으로 진정시켜 평온을 회복한양 선전한 것이 거짓임을 폭로한 것이었으며, 장소적 특성으로 볼 때, 일제(日帝)의 식민통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시가전이기 때문입니다.

김의사는 이시영, 이동휘, 조소앙 등 임시정부 동지들과 작별할 때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나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거사에 임하는 자신의 비장하고 결연한 자세를 밝힌대로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 순국하므로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1. 김상옥의사의 생애

가. 출생 및 성장기

김의사는 1890년 1월 5일 서울 동부 건덕방 어의동(현 종로구 효제동 72번지)에서 조선 육군 군관이었던 부 김귀현과 모 김점순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성품은 영특하였고, 몸은 단단하여 어린시절에 석전놀이와 같은 모험을 좋아하였으며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여 주위 어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김의사는 무관의 후예답게 평소 체력단련을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낙산, 남산, 북악산등지를 번갈아 뛰어올라 다니며 체력과 담력, 무예 단련 등, 심신의 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편, 습관적으로 방바닥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손의 악력을 단련하였다고 한다.

훗날 상해 망명시절에도 방바닥에 책이나 신문지 등을 두툼하게 깔아놓고 주먹 단련을 계속 하였으며, 이 모습을 목격한 상해임시정부 초대 법무총장 이시영 선생은 ‘김동지 그 무엇하는 거요?’ 라고 묻자 김의사는 ‘백발백중 권총 사격술을 연마하는 악력 강화 훈련이라’ 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김의사는 상해에 있던 미국인의 리벌버사격클럽에서 백발백중의 높은 명중률을 보였으며 일경과의 서울 시가전에서 그 실력을 증명하였다.

16세(1905년)에는 동대문감리교회에 가서 기독교에 입교 하며 교회를 다녔다. 그는 서구(西歐) 열강이 부강하고 문명의 개화를 이룩한 것이 기독교 때문이니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17세(1906년)에는 동대문교회내의 신군야학교(信軍夜學校)에서 주노야독(晝勞夜讀)으로 면학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신군야학교는 재정관

戰大最後義士金玉相漢先國

千餘倭兵 四重圍 飛虎將軍 怒濤聲 一騎當千 點敵手 神出鬼沒 五原塔 命出神技 超人境 談殺敵兵 數拾具 倭敵皆蕩 戰慄慄 是也抗日 獨立戰 最後一彈 自決殉 殉國聖地 孝節洞 忠義百世 波萬軒 民族正氣 永不滅

方景漢謹製

▲ 방경한 애국지사가 쓴 김상옥 의사 추모헌시

계로 중도에 폐지되었다. 그는 다시 어의동공립보통학교(현 효제초등학교 전신)에 다니는 한편 마을 서당에서 한문(천자문과 유몽까지)을 수학하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19세(1908년)에는 이 학교마저 중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20세(1909년)에 김의사의 면학(勉學) 정신은 더욱 강렬하여져서, 자신도 배워가면서 불우청 소년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주위의 도움을 얻어 스스로 동흥야학교(東興夜學校)를 설립하여 배움을 이어 갔다. 21세가 되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 강제로 병합되는 현실을 보고 일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와 선진국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미국유학을 꿈꾸게 되었다. 우선 그는 경성기독교청년회관(YMCA)에 있는 경성영어학교(京城英語學校)에 입학하여 영어공부를 시작하였으나, 학비조달과 가계(家計)를 꾸려나가는 두 가지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일 년도 못되어 이 학교마저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영어공부에 힘쓰는 한편 철공소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나. 기독교 신자로서의 활동

22세(1911년)에는 YMCA의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필주 목사(李弼柱 牧師,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대표)의 지도로 YMCA 청년부장을 역임하였는데, 이 때 가까워진 인연으로 훗날 독립운동의 동지가 되었다. 이필주牧사는 의열투쟁으로 피신하여 다니는 김의사를 자신의 집 다락방에 숨겨주기도 하였다. 23세(1912년)에는 오랜 공원생활을 끝내고, 동대문 앞 창신동 487번지에 영덕철물상을 개점하여 동생 춘원과 함께 경영을 시작하면서, 동대문안(현 종로6가)에 교회서점을 내고 권서활동을 병행하였다. 김의사는 권서활동과 예수교 전도를 목적으로 삼남지방을 돌며, 각 교회와 교인들을 만나 교회서적을 보급하고, 여러 곳의 장터를 다니면서 복음전도와 매약행상을 벌였다. 김의사는 복음전도와 매약행상이 끝나면 반드시 청중들에게 애국심을 촉구하며 민족독립의식을 고취 시켰다. 김의사는 권서활동과 매약행상을 수차

레 결행하였는데 상당한 수입을 얻어 철물상 경영에 큰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13년은 일제가 권서사업을 방해하고 예수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도시에서의 권서활동은 침체되었고, 동대문서점도 문을 닫게 되었다.

2. 스스로 찾아 나선 항일독립운동

가. 대한광복단 결성

김의사는 삼남지방 여행을 계기로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무단압제정치와 일본상품이 범람하여 우리시장을 독점 침탈하는 모습을 몸소 체험하면서, 항일의식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그 결과, 경북 풍기에서 만난 채기중, 한훈 등과 대한광복단을 조직(1913년)하게 되었다.

의병의 맥을 이어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을 지향한 대한광복단에 서울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결성 당시부터 참여했던 김상옥의사는 1916년 5월 한 훈, 유장렬, 곽경렬 등과 전라도의 악질 친일 부호인 보성의 양재학과 별교의 서도현 등 여러 명을 사살하고 조성(鳥城)의 일본 헌병대 분소를 습격하여 장총 2정과 군도 1개 및 권총 1정을 탈취하고 계속 일경과 그 주구 제거에 활약하였다. 광복단의 '조성헌병대분소' 기습의거는 경술국치(1910년 8월) 이후 최대의 일본군부대 습격작전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의거였다.

나. 일제상품 배척 및 물산장려운동

김의사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자극을 받아 일본상품과 대항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영덕철물상회 2층에 공장을 설치하고 공원을 모집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말총을 사들여서 대량으로 말총 모자를 창안 생산하는 한편, 장갑, 양말, 수건, 농기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일본상품과 일화(日貨)를 배척하고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의사의 구국적인 물산장려운동은 주위의 호응을 얻어 수십 명의 공인(工人)을 고용하는 철공소(대장간)로 발전하였다. 김상옥 의사는 직공의 수가 50여 명으로 늘어나자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공인조합'(工人組合)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동업자조합'(同業者組合)을 묶어서 동업 경영주들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데 앞장섰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조합'과 '경영자협회'인 셈인데 김 의사는 한 몸으로 그 두 가지 일을 술선해서 추진한 것이다. 자신이 경영주이면서도 경영자 쪽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에도 노

력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노’와 ‘사’의 권익을 다 같이 보장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었던 것이다.

김의사는 자신이 창안 제조한 말총모자 2개를 조소앙 선생에게 선물로 전달했었는데 훗날 이것을 인연으로 상해 망명시 조소앙 선생을 만나며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하여 중국인 동지들과 교제를 시작하며 망명시절을 함께 보내게 된다.

다. 백영사 조직 - 애국계몽운동

김상옥의사는 1917년 물산장려운동을 벌인 무렵 이종소(李鍾韶)·임용호(任龍鎬)·김동계·손정도(孫貞道) 등과 자주 만나서 사회계몽·민족독립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실행했다. 그리하여 백영사(白英社)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일어(日語)사용(使用)금지·금주(禁酒)·금연(禁煙)운동을 크게 전개하는 한편, 미주에 유학생을 보내었다. 이종소·임용호 등이 미국에 유학해서 ‘사회개진당(社會改進黨)’을 창립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손정도는 1914년부터 약 1년간 감리교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일한 사람으로 1919년 상해로 망명, 임시의정원(국회)의 의장이 된 독립운동가이다.

라. 3.1운동 참여

1919년 3.1운동때는 태극기를 제작 배포하며 직공 50여명을 인솔하여 만세 시위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중, 만세를 절규하는 여학생을 위협하는 일경(日警)을 발견, 반격하여 여학생은 구출하고, 무기(장검 1개, 단검 2개)를 탈취하였다. 탈취하였던 장검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 전시 중이다.

3. 본격적인 항일독립운동

가. 혁신단 조직

1919년 3.1운동 이후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난 제암리 학살사건은 김의사를 비롯하여 평소 교분을 쌓아왔던 청년학도들인 박로영, 윤익중, 신화수, 서대순, 정설교, 전우진 이혜수 등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대문교회 뒷집인 영국인 피어슨 여사댁에서 모여 비밀결사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지하신문인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 항일독립의식과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제암리 사건의 진상을 비롯한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소식 및 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 정책, 상해임시정부 동향 등을 전하는 혁신공보를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며 시민들에게 배포하던 중 부일배(附日輩)인 한국인 형사 김창호에게 탐지되어 신문은 압수되고 김의사는 체포되니 종로경찰서에 구금되어 악독한 고문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시종일관 목비권을 행사하면서 40여 일간 수난을 당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혁신공보를 계속 속간하면서, 11월에 들어서자 국내는 물론이요 해외 첩보망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민첩해졌으며 「혁신공보」의 존재는 더 뚜렷해졌으나 재정난이 심해져서 김 의사를 비롯한 동지들이 사재를 거의 다 바쳤고 또 경찰의 감시와 추궁이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인쇄와 배달이 무척 어려워졌다. 마침내 「혁신공보」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상해 임시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였으나, 상해 임정의 재정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동지들이 의논 끝에 김의사의 의견을 좇아 「혁신공보」는 일단 중단하기로 하였다.

나. 의열투쟁

(1) 암살단 조직과 사이트총독 처단계획

상해임시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은 것을 계기로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아래에서는 지난날의 미온적인 투쟁방법으로는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래서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모색, 일제 총독 및 고관을 비롯하여 민족반역도배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웠다.

원래 김상옥은 일찍이 광복단원으로서 그러한 투쟁을 실천한 바 있으므로 초기의 투쟁 방식으로 회귀한 셈이기도 하다. 김의사는 1919년 12월 혁신단 조직을 기반으로 동지들과 암살단을 조직 결성하였다. 김의사의 '암살단' 조직은 때마침 밀입국한 만주독립군 요원을 매개로 독립군과 연계된 공동투쟁을 추진했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경신년) 1월 하순 만주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로부터 22세의 청년 김동순(金東淳)이 밀파되어 서울에 왔다.

◆ 미국의원단 내한 계기 - '종로시가전' 계획' ◆

1920년 8월 24일 미국의원단 일행의 내한(來韓)을 기회로 환영 나오는 사이트총독 이하 고관 등 민족반역자 등을 처단하고자 '종로시가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사격훈련, 차량동원 등 모든 준비를 진행하였다.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로부터 대량입수하기로 되어 있는 무기가 도착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암살단'과 그 목적이 비슷한 한우석(韓禹錫, 일명, '한훈(韓焄)'이

지휘하는 광복단(光復團)의 '결사대(決死隊)'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훈은 바로 1913년 풍기에서 광복단을 결성할 때부터 김의사와 함께 가담했고 특히 전남 보성의 '조성 헌병대 기습의거' 등을 함께 한 동지요 전우였다. 한우석은 1918년 1월 친일 매국노 이종국(李鍾國)이 광복회의 내용을 천안경찰서에 밀고함으로써 조직이 파괴되고 많은 동지들이 피검될 때 국외(만주)에 망명중이어서 화를 면했고 그 후 상해 임시정부와 협의 아래 광복단 결사대를 결성해서 큰일을 하려고 권총 40자루와 탄환 3천 발, 폭탄 10개를 휴대하고 1920년 3월 입국해 있었던 터였다. 그러니까 김상옥-한우석의 이번 만남은 '암살단'과 '결사대'의 만남이요 옛 광복단 동지가 다시 만나 재결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원은 많이 확보됐으나 만주에서 보낸 다던 무기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어 고민 중이던 '암살단'과, 무기는 마련되어 있는 편이나 요원확보가 미흡했던 '결사대' 사이에 유무상통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계기도 됐던 것이다.

두 사람은 김의사를 총지휘자로 세워서 함께 종로시가전을 준비완료하고 미국의원단 일행의 내한(來韓)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사 하루 전(1920년 8월23일) 사전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경의 예비검속으로 인하여 동지들이 모두 체포됨에 김의사는 크게 실망하고 혼자 남아서 고심 끝에 약 2개월간 이필주 목사의 집 다락방에 숨어 지내면서 옥중 동지들을 탈옥시켜 다 같이 상해로 망명하기 위하여 서대문형무소의 강씨 간수(看守)를 설득하여 동지로 포섭하고 망명 계획을 옥중 동지들에게 알리자 동지들이 절대 반대하므로(옥중 동지들이 해방 후 김의사의 추모식에 참석하여 증언한 것임) 부득이 김의사는 1920년 10월 상해로 망명하였다.

(2) 군자금 모금 활동

◆ 길림군정서 군자금 지원 ◆

김상옥 의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한 것은 물론이고, 군자금 모금에 상당한 노력과 성과를 거두며 길림군정서를 지원하는 가하면, 암살단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월 하순 김좌진(自治 金佐鎭)장군이 지휘하는 만주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로부터 서울에 밀파된 김동순(金東淳)을 만난 김상옥은 의기투합(意氣投合)하여 암살단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김동순이 길림군정서 본부에 김상옥과의 합의 사항을 길림군정서에 보고하기 위해 그 해 3월 하순 만주로 길을 떠날 때, 김상옥은 군자금 5천 원을 주선하여 김동순이 그 중 일부를 길림군정서에 전달하게 하였다.

길림군정서는 그 해 4월 하순 서울로 돌아오는 김동순 편에 무기를 보내고, 길림군정서가 독립운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을 지원할 국내 동지들을 모집해 주기를 김의사에

게 부탁하였다. 약속대로 길림군정서에 재정을 지원하려면 재정 조달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김의사는 유지들이나 혹은 부지들을 찾아가 그 목적을 말하고 독립자금의 일부를 부담 시키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박영효(朴泳孝)인데 박영효는 김의사의 기탄없는 이야기를 듣자 서슴지 않고 3천 원을 내어주었다. 그 다음 당시 변호사 박승빈(朴勝彬)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새벽 일찍 김동순과 함께 가서 찾아 온 내력을 전달했더니 의외로 난색을 보였다. 김상옥은 약속과 다른 박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부리나케 10연발 권총을 꺼내 들고, 김동순도 권총을 들고 시위하며, 김상옥은 다시 “이 수전노야, 나 같은 일개 철공업 대장장이도 전 재산을 바쳐 조국 광복에 제공했다!” 하고 호령했다. 박 변호사는 두 청년의 기세에 억압되고 또 감탄하며 1천 원의 수표를 수교하였다. 김의사와 김동순은 곧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꾼 후 일금 6백 원을 만주 길림군정서로 직송했다.

◆ 상해 망명 자금 조달을 위해 ◆

한편, 김의사는 상해로 망명하기 직전, 경성시의 왕십리 거주 김태현(金泰鉉)목사의 집에 피신하여 있으면서 김태현 목사를 통하여 유득신을 만났다. 유득신은 경찰의 강화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상해로 망명하려는 김의사의 계획을 듣고 여비 조달을 위해 군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수일 후 유득신은 엄준(嚴俊)과 함께 1920년 10월 10일 경기도평의원 임종상(林宗相)을 찾아가서 군자금 제공협조를 권유하여 2천 원을 교부받아, 이를 김상옥에게 수교하였다. 그 후에도 유득신과 엄 준은 동년 10월 30일 고양군 이만응(李晩應) 집에 들어가 군자금 206원 50전을 조달하여 임시정부 특파원 홍준(洪俊)에게 수교하였다. 그들은 양주군 노해면 거주 김만원(金萬源)을 비롯하여 경성시 내외를 중심으로 연 7회에 걸쳐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 임시정부를 위해 ◆

임시정부의 재정 형편도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소앙, 조완구, 김원봉 등 여러 동지들의 우울한 표정은 보기가 딱할 정도였다. 그래서 곧 이시영, 조소앙 등 동지들과 상의하고 국내 저명 인사들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받는 한편 약간의 무기와 탄약을 휴대하고 1921년 7월 초순 조국의 심장인 서울을 향하여 ‘귀국 길’ 아닌 ‘잠입 길’에 올랐다.

그 해 7월 하순 서울에 잠입한 김상옥은 몽매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밖에 선 채 잠깐 뵈고 그 길로 충청, 전라도 지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은신이 필요한 몸이기도 하거니와 임시정부 원조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상옥은 충청, 전라도의 몇몇 곳을 빨리 돌아 그 곳 지사들의 집을 방문하고 임시정부 재건비로 약간씩의 자금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상해를 떠난지 한 달 남짓하여 김의사가 돌아오자, 김 구, 이시영, 조소앙, 김원봉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모두 고국의 소식을 물으며 무사히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다.

(3) 의열단 조직 및 참여

송상도의 기려수필(騎驢隨筆)에 의하면, 상해에 망명한 김의사는 1921년(辛酉) 1월에 김원봉(金元鳳), 이종암, 서상락 등과 함께 의열단 재조직에 참여하였다. 이보다 앞선 1920년(庚申) 11월에는 이종암, 배중세, 고인덕 등과 함께 밀양의 마산리 한봉인 집에 가서 비밀리에 폭탄 2개를 제조하고, 그 폭탄을 넘겨받은 최경학이 동년 12월 27일 밀양서(密陽署)에 투탄(投彈)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1962.3.1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서울시는 2010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 2010-33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고시」에 의하여 아래 도로 구간을 「김상옥로」명명하였습니다. (기존의 '김상옥길'은 폐지됨)

시작점 : 인의동 101-8(종묘 동쪽 창경궁로 접점)

끝지점 : 종로6가 28-1(율곡로 동대문 방향 접점)

도로명 : 김상옥로 _ 순번 411 <도로의 길이 818m, 도로폭 20m>

이 도로는 김상옥의사(金相玉 義士, 1890~1923)의 생가와 최후대격전 자결순국현장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김의사의 공훈을 선양하기위한 것입니다. (1)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청산을 본다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기술연구본부

한국에서 친일파 진상 규명 등 과거사청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독일의 나치 통치를 겪었던 유럽의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독일에 점령되었던 각국이 독일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히 처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해국인 독일조차도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 등을 통해 나치지도부를 숙청했다. 서독이 영국과 프랑스 등 승전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서방국의 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각국에 큰 피해를 준 나치 전범을 철저히 사법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나치 협력자 청산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프랑스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부연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5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하여 왜 나치 협력자들을 숙청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나치 협력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영국에서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이끌던 드골은 프랑스 국내의 반나치 저항운동을 지휘하고 연합군

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나치 독일과 싸웠고, 1944년 8월 25일 폰 콜티츠 독일군사령관이 항복하면서 수도 파리가 해방되자 개선장군으로 입성했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이 완전히 탈환된 것이 아니며 제헌의회를 구성할 수 없었지만, 드골은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독일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방된 지역에서는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드골은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의 반역자, 나치 협력자들의 숙청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이 당시 드골이 규정한 민족반역 범죄자는 자유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인도한 비시정권의 고위 공직자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들이다. 드골은 나치협력자 숙청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치 협력자들은 정치적 결정, 주로 정치활동과 때로는 군사행동 그리고 행정조치 및 언론의 선정 활동 등의 변화무쌍한 형태로 프랑스 민족의 굴욕과 타락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박해마저도 미화했다.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치 협력자들의 엄청난 범죄와 악행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전염하는 흉악한 종양(腫瘍)들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협력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양들이 중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당시 나치 협력자로 규정된 사람은 다음 3가지였다.

- ① 자유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 ②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잘못 인도한 비시정권의 고위 관료들과 추종자
- ③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 사람

드골이 나치 협력자 청산에 있어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올렸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은 도덕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지식인과 작가는 사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드골의 지식인에 대한 굳은 의지는 그의 「전쟁회고록」에서 저명한 작가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숙청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예술가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악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적대진영을 선택한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자극적 웅변술이 어떠한 범죄와 어떤 벌에 해당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있다.”



▲ 전후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을 추방하는 프랑스

이 당시 숙청된 지식인들로는 《공화주의 리옹》을 발행한 사주 알베르 르전, 클레망소의 전기를 쓴 역사가로 나치 점령 시절 비시정권의 일간지 《오늘》의 정치부장을 맡았던 쉬아레즈,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마탱》의 편집국장 로잔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문사 사장, 언론인들이 민족반역자로 재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끈 사람은 천재 대학교로 유명한 파리고등사범 출신(에폴 노르말) 작가이자 언론인인 브라지야크로, 그가 1945년 1월 재판에 회부

되었을 때는 36세에 불과했다. 그의 재판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프랑스가 낳은 보기 드문 인재라는 프랑스인들의 인식 때문이지만, 그가 프랑스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검사로부터 더욱 큰 질타를 받았다.

검사는 “보통 사람의 배반보다 브라지야크와 같은 지식인의 배반이 수백 배 더 나쁘다”고 논고하며 그를 단순한 나치 협력 배반자보다 더 악질인 지성적 반역자로 규정했지만,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의 사형선고에 찬성하면서도 그의 ‘천재성’이 안타깝다고 사면을 바랐다는 점이다. 특히 브라지야크는 파리에서 철수하는 나치 독일군을 따라 독일로 도망치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단연코 거부하고 자수했으므로 국

민들의 호감도 받았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레지스탕스 운동과 저항언론을 주도한 카뮈조차 나치 협력자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감형탄원서에 서명하여 드골에게 보냈다. 그러나 프랑스 지식인 59인이 서명한 진정서를 받은 드골은 그들의 탄원을 기각했고, 브라지야크는 사형선고를 받은 지 약 2주 후에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여하튼 지드와 같은 지식인에 대해 숙청설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인, 작가들에 대한 숙청이 철저했다는 뜻이다. 파리 해방 직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응징된 나치 협력자들은 모두 언론인들과 작가 등 지식인들이었다. 이와 같이 드골이 처음부터 지식인들을 숙청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치 협력자 숙청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비판여론이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잠재울 수 있었다.

드골은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 비시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숙청한 후 각계에 뿌리박은 나치 협력자 또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족을 배반한 경찰과 판검사가 나치 협력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여 1944년 말에 이미 5천여 명이 경찰이 체포됐다. 403명의 판사들이 나치 협력혐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체 판사의 17퍼센트에 이르는 수치였다.

나치 협력 외교관에 대한 숙청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1945년 1월에 이미 대사 75퍼센트, 공사 40퍼센트, 참사관 25퍼센트가 처벌받았다. 교육성도 무려 6천여 건의 나치 협력자 혐의사건을 심사하여 교육성의 고위 공직자 357명이 직위박탈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물론 초기 숙청이 다소 무리한 점도 있어 1953년 이후 5백여 건의 재심 청구가 들어와 모두 이유 있다고 판정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드골이 매우 고심한 것은 군부의 숙청이었다. 그는 우선 나치 독일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취한 군의 조직이나 단체에 가담한 장교나 하사관은 모두 파면시킨다고 선언했다. 1946년 말까지 모두 1만 270명의 장교들이 조사 받아 650명이 파면 당했고 2천 570명이 전역 당했다. 지방공무원도 5만여 명이 나치 협력 혐의로 조사 받았다. 프랑스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1만 6천 113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응징되었다고 발표했다. 군·관·정계의 숙청을 단행한 드골은 나치 독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한 대기업 사주들도 예외 없이 숙청했다. 드골은 나치 협력 대기업 소유주의 재산을 몰수했고, 그 기업을 국유화했다. 물론 국유화되는 기업들의 주식은 정부가 현 시가대로 보상하여 선량한 주주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의 기업, 즉 경제부문에 대한 숙청은 정치, 행정, 언론 등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관대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회사인 르노는 국유화되었고 사주 루이 르노는 옥중에서 사망하였지만, 기업의 대표가 구속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체로 재산몰수형에 처해졌다. 드골도 전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드골의 대

숙청과 국유화 조치 등 경제개혁에 비판을 하지 못한 것은 드골 개혁이 갖고 있는 고도의 공정성 때문이었다.

언론사의 경우도 예외가 없었다.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한 언론사는 물론 나치 독일의 프랑크 점령 이후 창간된 모든 신문과 잡지들을 대상으로 소유주가 재판을 받는 경우 모두 발행 금지시켰다. 또한 소유주가 실형을 받으면 그 언론사는 곧바로 폐간되었다. 물론 문학과 스포츠 등 정치성이 전혀 없는 전문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신문사에 대한 재판은 1945년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1948년 말까지 모두 538개 언론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이중 115개 사가 유죄선고를 받아 폐쇄됐고, 64개 사가 전 재산 몰수, 51개 사는 일부 재산을 몰수 당했으며, 30개 언론사만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전쟁 전부터 발행되던 유력 신문사 중 살아남은 것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 등 3개뿐이었다. 이 신문들은 독일의 점령과 함께 파리에서 지방으로 피난하였으며, 점령 기간 중에 정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켰던 것이다. 출판사에 대한 숙청의 큰 골격도 마련됐다.

“출판사 등의 민족배반 행위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멘트 나 가족을 적에게 팔아 단순히 돈을 버는 일보다 장·단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연예계에 대한 숙청도 빠지지 않았다. 먼저 예술직업인증명서 발부제도를 창안해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무대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나치 협력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예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것은 프랑스 연예인들의 철저한 직업의식, 즉 예술가적 기질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치 점령 시절 프랑스의 자체 영화산업은 거의 무너졌고, 독일자본으로 설립된 ‘컨티넨탈 필름’이 프랑스 영화산업을 장악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선전영화가 프랑스인들에게 외면을 받자 나치도 프랑스의 예술성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나치 점령시대이기는 하지만 영화감독들은 점령 당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 검열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 제작된 앙리 크루조 감독의 《까마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화사상 가장 걸작 중에 하나로 뽑힌다. 이것은 컨티넨탈 필름이 프랑스에 있는 독일영화사이지만 작품을 만드는 프랑스 감독들이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영화계의 숙청은 그야말로 미미하여 5명이 견책을 받았고, 1명이 직업 활동 금지령을 받았을 정도이다. 세계적인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도 독일 공연을 문제 삼아 조사했지만, 프랑스 포로의 수용소 탈

출에 필요한 여권을 만드는데 협조한 것이 인정되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피아프에게 사죄까지 했다(피아프가 만든 가짜 여권은 무려 147개나 됨).

드골은 초반부에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들, 그리고 비시 정권의 최고 지도부를 심판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을 내린 후 비시 정권 공직자들, 지방공무원들, 사법부와 군부, 교육계와 경제계, 출판인과 연극인 및 영화계, 미술계, 석학집단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나치 협력자들을 차례로 숙청했다. 프랑스의 숙청 논리는 다음 말로 축약될 수 있다.



▲ 나치 부역자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드골 대통령

“나치 전체주의에 민족의 혼과 정신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이념을 달리한다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은 아니며, 단지 국가의 관리와 경영을 달리하는 이념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프랑스 사회를 정화한다

드골의 정책 목표는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를 신속히 숙청해야만 프랑스의 위상도 올라가고 국내 질서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언론인 등 지식인들을 제일 먼저 숙청하여 민심을 임시정부 측으로 돌려놓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드골은 조속한 시일 안에 프랑스를 새로운 틀로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인기몰이식인 언론인을 비롯한 지도층만 척결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드골은 부역죄(indignite nationale, 국민자격의 박탈)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부역죄는 나치 협력 반역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나치에 협력을 시도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 일반인 등 경미한 나치 협력 사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부역죄는 나치 독일과 공개적으로 협력한 비시 정권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 국민들, 국가반역죄로 다스릴 수 없는 비시 정권 지지자들, 나치 점령기간 합법성을 가장한 비시 정권의 법을 숭배해 준수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나치 독일에 협력한 프랑스 상층부는 물론 하층부 사람들도 모두 숙아낸다는 뜻이다.

부역죄의 큰 골격은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역죄는 형을 선고 받은 모든 나치 협력자에게 병과 되었고 심지어는 알제리에서 사형된 나치협력 반역자에게까지 소급해 적용됐다.

부역죄를 선고받은 부역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 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물론 이와 같은 부역죄는 이중처벌이라는 반대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특히 자동적으로 재산몰수형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형벌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국민의 단결을 해치고 프랑스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 행위를 한 자가 바로 부역죄를 저지른 자’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을 유도하자, 프랑스인들도 빠른 시간 안에 프랑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인식했다. 드골은 프랑스를 팔아먹은 사람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프랑스는 매국노가 아닌 프랑스인에 의해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치 협력자 숙청이란 결국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줄 수 있는 방편이라는 뜻이다. 이 점이 바로 프랑스가 해방된 후 다른 나라와 같이 좌파와 우파가 분리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지 않고 국민 전체가 나치 협력자 색출과 조국 건설에 앞장 설 수 있게 된 요인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반면에 독일 점령기간 동안 프랑스를 위해 싸운 레지스탕스들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보상과 응답을 받았다. 사실상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인 프랑스인은 엄청난 숫자였다. 전쟁이 끝난 후 30만 명이 공식적으로 레지스탕스 경력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숫자는 당시 성년 남자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44년부터 194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로 좌익으로 구성된 레지스탕스 세력은 정계의 다수를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전통적 우익을 포함하여 우익 정치세력은 비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되었다.

특히 비시 정권에 손을 들어주었거나 직접 비시 정권에 참여하였던 302명의 하원 및 상원의원들이 피선거권을 잃었다. 이 가운데 반이 넘는 163명이 1936년에 중도 또는 우익에 속하는 의원들이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레지스탕스 신문들이 전체 일간신문 구독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공산주의 계열의 신문 구독자 수는 전쟁전보다 네 배를 넘어섰다. 레지스탕스라는 이름은 일종의 성스러운 상징이 되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로 간주되었다고 박원순 변호사는 적었다.

시효가 없는 나치협력자 청산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속전속결이 특징이다. 최고재판소가 형식적이거나 1960년까지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숙청은 1951년에 종지부를 찍어 단 6년 만에 숙청재판을 종결했다. 프랑스의 연감 「퀴드」 2003년 판은 나치 협력자 청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치 협력자 조사대상 150만~200만 명, 체포되어 조사 받은 자 99만 명,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 5만 7천 100여 건, 6천 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천 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천 578명에게 공민권 박탈했고,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천 건을 재판해 9만 5천 명이 부역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 받은 사람들은 군대 장교 4만 2천여 명, 정부 관료 2만 8천 750명, 경찰간부 170명,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 18명이다.”

물론 서슬이 시퍼랬던 나치 협력자 청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져 최초에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는 나치 협력자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1951년에 이미 강제노동형 수형자 406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나치 협력자들은 일부 가석방의 은전을 받아 풀려났더라도 사회에서 부역죄라는 형벌이 계속 발목을 잡아 정상활동이 불가능했다. 피선거권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권도 박탈당했으며, 공직은 물론 언론이나 국영기업체에도 진출이 차단됐다.

폭풍우와 같았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사면의 당위성으로 프랑스인들의 관대함, 국가적 화해, 점령기간 동안에 범해진 범죄의 일정한 정치적 성격, 이탈리아와 독일에서의 화해정책의 선례 등을 꼽았다. 여하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51년 1월 5일의 통과된 최초의 사면법은 공민권 박탈 판정을 받았거나 1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사면하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이 법은 강제로 징용되었거나 21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거나 대부분의 형기를 채운 사람들에게 대한 구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중대한 범죄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1952년 7월에는 ‘국가적 일치’라는 기치를 내걸고 보다 총체적 사면을 약속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들은 “제4공화국은 이해와 인간성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가중되는 위기 속에서 모든 프랑스 국민의 단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조국이 내일 위험에 처한다면 그 방위를 위하여 프랑스의 모든 자녀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1953년 7월 두 번째의 사면법도 통과되었고,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고 당시까지도 복역하고 있던 부역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사실상 이 법에 의해 프랑스의 부역자에 대한 처단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해방된 1945년을 기산으로 한다면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역자 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드골 시대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1964년대에 자국 형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을 병합해 국가반역죄와 반인권범죄 및 인종차별범죄에 관해 시효가 없이 체포해 재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반인도적 범죄란 ‘정치적, 인종차별적 및 종교적 목적으로 시민을 살해, 몰살, 노예화 및 유형에 처하거나 고문하는 등 박해를 가하는 범죄’로 정의되는데, 이 법은 서유럽 선진 민주국들이 모두 자국 형법에 편입시켜 일반화되었다고 주섭일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은 설명했다. 그러므로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정부는 1983년 레지스탕스 영웅 장 물랭을 고문 살해한 리옹 지역 나치 게슈타포의 바르비를 남미 볼리비아에서 체포해 재판했다. 바르비에게는 프랑스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으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92년에는 드골의 나치 협력자 숙청 때 도주해 2차레나 쾰석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폴 투비에도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79세의 고령이었다. 그럼에도 정상 참작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사망했다.

1998년에는 비시 정권의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이 나치 협력자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비시 정권 하에서 레지스탕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드골의 집권 후에도 현직에 그대로 머물렀었으며, 오히려 랑드 주지사로 승진까지 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하에서는 예산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과거의 그의 행적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그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독일의 요청에 의해 유태인을 추방하는 문서에 파퐁의 서명이 계속 발견된 것이다.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유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행위는 물론 시효가 배제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었고,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의 나이 90세였다.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로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의 답변은 역사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협력한 배반자들을 ‘외세와 내통한 이적죄’와 ‘간첩죄’를 적용해 대담하고도 대단히 가혹하게 심판하고 처벌했다. 그리고 반나치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좌·우파 정치인과 애국적 시민들로만 새로운 주체세력을 형성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적인 프랑스 국가를 건설했다. 드골은 프랑스를 새로 이끌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념 문제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좌파든 우파든 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세력을 총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나치 협력자들이 프랑스 내에서 근거를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장 폴 장 교수는 나치 협력자들을 오늘날에도 재판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전체주의적 과거에 반대하는 자유의 진리는 새 출발하는 국가의 당연한 여망이다. 과거와 미래의 회전축에서 사회정의는 최고의 가치이다. 역사는 모든 현재의 역사가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에서 자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과거청산이 사회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양식이라면, 그 근본목적은 사회가 가동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부활에 있다. 바로 여기에 반세기 전 나치 협력자 재판을 오늘에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 ㉔

[참고문헌]

- 주섭일,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연대, 2004.
- 박원순,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네이버블로그.
- Robert O. Paxto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 Harcourt Brac Jovanovich Publishers, San Diego, 1975.
- 마아틴 플라섹, 「오스트리아에서의 정의(正義)와 나치협력자들」; 노어베르트 프라이어,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서독에서의 탈나치화 작업과 과거를 다루는 정치」, 2006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oad of Liquidating the Past: Poland, Germany, Austria and Korea,'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

어머니의 긴 여정... 그리고 한맺힌 3가지 사연



우원식
前 국회의원

우리 어머니 김례정여사의 살아온 삶은 우리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역사의 굽이굽이를 넘어가면서 어머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래 사시면서 가장 ‘한’으로 남은 세 가지의 사연들이 있다.

우선은 어머니의 아버지 즉, 나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이다.

외할아버지의 성함은 ‘김한’ 선생이다. 김한 선생의 이력은 대략 이렇다.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제국의 탁지부 주사라는 벼슬을 하다 한일 합방 된 이후 ‘서울청년회’, ‘무산자동맹회’라는 청년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신다. 그 후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법무국 비서국장을 역임하시다 의혈단의 국내 책임자격으로 다시 서울로 와서 의혈단원인 김상옥열사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폭탄을 대준 혐의로 체포되고 5년간 감옥을 사신다.

출옥 후에 신간회 북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 중 한분으로 활동하시다가 30년 신간회사건이 터지면서 소련으로 도피하고 그 곳에서 37년에 사망하셨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전생을 바친 아버지를 모셨으니 어머니의 삶은 매우 곤궁할 수밖에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감옥에 계시는 동안 당시의 동아일보에 '김한씨의 가족' 이라

는 제목으로 실린 가족 탐방기사 중에 어머니의 어머니 즉, 나의 외할머니는 '곤궁한 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무공장 직공으로 나가고 어린 딸 레정은 아버지를 보고 싶다며 자주 울고 레정이 다니는 공덕회 소학교에서는 그 사정을 딱히 여겨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는 대목에서도 당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집 앞에는 한시 어머니의 표현으로 '양복쟁이' (형사, 기관원)들이 지키고 있어 늘 마음을 졸이셨고 보고 싶은 아버지는 거의 볼 수가 없어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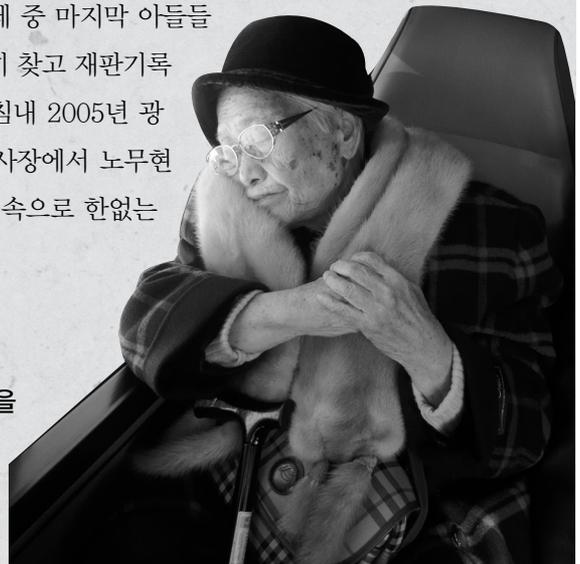
냉전시대의 엄혹함 속에 사회주의계열에 가까웠던 아버지의 삶을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어 냉기슴을 많이 앓으셨다. 그런데 9형제 중 마지막 아들들인 천식과 원식형제가 외할아버지의 행적을 자세히 찾고 재판기록까지 찾아 독립유공자 신청을 수차례 한 결과 마침내 2005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그해 광복절행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을 때 속으로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두 번째 사연은 고향땅으로 보내고 그대로 생이별을 하게 된 두 딸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두고 정혜, 덕혜, 두 딸을 보고 싶어 했고 딸이 간절히 보고 싶을

“ 현대사의 굵이굵이를 거치면서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만든 큰 멍에를 켜켜이 부여안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

”



▲ 상봉 후 어머니



▲ 어머니의 젊으셨을때 모습

어머니의 환갑날, 원식이 학내시위사건에 연루되어 아침 일찍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오후에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쳐 환갑잔치가 엉망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던 원식이가 강제 징집되다시피 군을 다녀오더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81년 5월 광주항쟁 1주년에 맞추어 학내시위를 주도하고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1심에서 1년형이었던 징역형이 2심에서 3년형으로 더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심지어 겨울에는 우리 아들이 차가운 감옥에 있는데

때면 임진각에 나가 북녘 땅을 한없이 바라보곤 하셨다.

아버지는 87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북한에 있는 딸 정혜와 덕혜를 못보고 돌아가시는 것을 몹시 한스러워 하셨고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매우 서러운 대성통곡을 하셨다.

세 번째 사연은 막내이들 원식에 대한 걱정이었다.

집안이 안정되고 어머니의 연세가 환갑을 넘어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해나가던 때였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시절인 76년에 대학에 입학한 원식이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집은 정보기관의 감시대상이 되고 원식은 가끔 피신도 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내 어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냐며 안방의 보일러를 끄시기도 했다.

그 후 재야운동, 노동운동을 하는 아들을 보며 30여년을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지난 17대 때 원식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어머니의 큰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큰 고통, 큰 한의 세 가지 사연 중 이미 두 가지는 어머니의 큰 한을 다 푸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북한에 있는 누님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여한이 없다.

한 가지 남았다면 북한에 있는 덕혜 작은누님을 만나는 일인데 이미 정혜누님으로부터 덕혜누님의 소식과 사진도 받았기 때문에 커다란 시름은 다 해소된 셈이다.

현대사의 굽이굽이를 거치면서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만든 큰 멍에를 켜켜이 부여안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런데 최근 7~8년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그 멍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누님을 만나시면서 이제 온전히 자유로워지셨다.

돌아오는 길에 하신 어머니 말씀이 귓전에 그대로 울린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혜 만나러 가야 한다고 결심하신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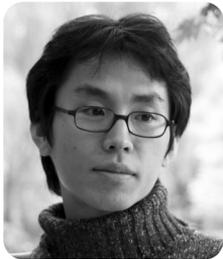
우리의 모진 현대사는 모질게 걸어오신 우리어머니가 오늘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주셔서 정말 고마울 수가 없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



〈저개발의 기억〉,

쿠바 혁명의 또 다른 기억들



이 두 희 | 자유기고가

1960년대 초반 냉전체제 속에서 세계는 쿠바를 주목하고 있었다.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쿠바 혁명에 성공했고, 이에 불편해진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은 쿠바 미사일기지 사태로 그 정점을 향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토마스 구티에레스 알레아 감독의 1967년작 〈저개발의 기억〉은 이 즈음의 쿠바에 대한 복잡한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59년 쿠바가 바티스타 장군의 독재정권을 전복하며 혁명에 성공하자 쿠바의 지배계급들은 우선 망명을 시작했다. 아직 혁명정부에 대한 전복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60년대 초반의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주인공 세르지오는 비록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기는 하지만 혁명에도 일부분 동조하는 지식인이다. 세르지오는 결국 헤어진 아내와 친구들과 달리 쿠바에 홀로 남기를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붕괴하는 피식민지국가로부터 독립한 저개발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쿠바에서 비판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혁명 후의 사회에서 잉여적인 존재가 된 그의 삶은 너무 단조롭거나 느슨할 뿐이다. 결국 급변하는 시대에 휩쓸려가는 그의 인식과 경험들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고, 사라져가는 추억과 함께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한편, 그 사이 미국은 쿠바에 건설되려는 소련의 미사일기지를 막기 위해 쿠바의 봉쇄를 결정하고 냉전은 그 위기의 정점에 이르고 있었다.

영화 <저개발의 기억>은 이러한 세르지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난삽해 보일 수도 있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영화의 나레이션은 세르지오의 독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영화의 이미지들은 그가 본 것만이 아닌 그의 상상들과 함께 다큐멘터리적 기록들로서 서술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영화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 그의 분열하는 의식을 가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세르지오는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 역시 떠나간 사람들과 남겨진 것들에 대한 추억과 회한과 함께, 자신의 성장을 함께 간직한 과거가 자신의 존재근거와 함께 파괴되고 있다는 것에 서글픔을 감추지 않는다. 또한 그에게 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는 낙관적이기 만한 것이 아니라 저개발 변방국가가 가지는 일련의 후진적인 표상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생경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 유럽에게는 카리브해의 파리라고까지 불리던 휴양지였던 쿠바는 비록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 문화에서는 독립에 성공했지만 아직 저개발국으로서 별거벗은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지어 주인공은 쿠바는 혁





명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난함을 받았다고까지 말한다. 그뿐 아니라 혁명이 끝나자마자 안정을 찾기도 전에 쿠바는 이제 다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두 거대한 체제의 대립 사이에 끼이고만 것이다. 과연 제3세계에서 혁명국가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 영화는 1965년 발표한 에드문도 데스노에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작가 역시 감독과 함께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었다.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화자는 주인공의 심정을 이렇게 전달한다. 자신은 “위기의 나날들에 대해 깨끗하고 텅 빈 시각을 유지”하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설과 영화의 화자는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모두가 착각에 빠져 있다. 반혁명주의자들은 자신의 안일한 무지함으로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혁명주의자들을 이 나라를 저개발 상태에서 꺼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과연 현실모순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 경계는 변혁의 시기에 있어 지식인에게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그리고 영화는 계속하여 주인공이 가지는 입장의

이러한 이중성, 혹은 모호함을 추적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에 있어서 <저개발의 기억>은 드라마의 흐름을 벗어나는 비연속편집이나 때때로 뉴스릴과 같은 자료 영상들과의 교차편집, 그리고 불협화음이 두드러지는 사운드트랙 등을 통해서 현대영화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원작소설에서도 알랭 레네의 〈히로시마 내 사랑〉을 직접 언급하고 있고, 영화 역시 여러 부분에서 그 모더니즘적인 스타일을 참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효과로써 영화는 주인공의 분열적인 의식의 흐름과 현실의 단편들을 동시에 기록하는데 성공한 듯하다. 다만 알랭 레네의 영화가 순수한 영화적 시간과 공간을 영화 안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개발의 기억〉은 가장 주관적인 독백마저도 어떤 치열한 현실의 의미를 천착하는 듯이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혁명 이후 쿠바의 현재성이 가지는 존재감을 미학적인 실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영화가 그 역동적인 생생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형식과 내용의 조합이 완결적이기보다는 차라리 불균질한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은 어쩌면 진행 중인 현실과 그 모호함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적어도 영화가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지 기록을 넘어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사유와 인식이 될 수 있다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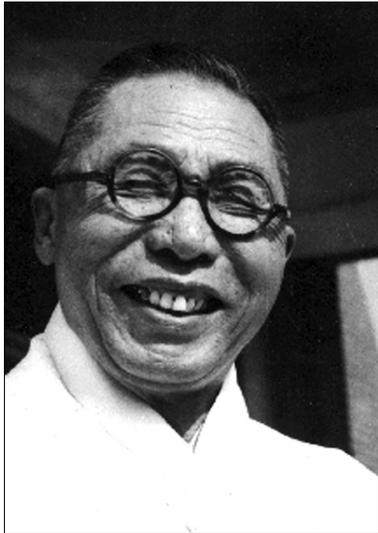
한편, 쿠바가 이러한 사정 속에서 고통스런 재탄생을 하고 있을 때, 60년대의 우리는 그 세계의 맥락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경제개발 정책들 속에서 남한사회는 당면한 현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쿠바의 이러한 얘기들은 적어도 우리가 숨 쉬고 있던 사회와는 먼 거리를 둔 세계사의 다른 맥락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록 혁명은 아니었지만 오랜 식민지 경험을 지나서 독립했던 우리에게도 타자가 되어버린 혈벗은 자신의 조국을 되찾고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소설 〈저개발의 기억〉에서는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 속의 한 대사를 인용하고 있었다. "나는 치유할 수 없는 기억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우선 중요한 것은 영화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우리의 기억을 잊지 않는 것이리라. (C)

백범선생께 드리는 편지

- MBC 정치드라마에서 백범 역을 맡았던 이영후가 올리는 편지 -



▲ 백범 김구

선생님,

작년은 우리 임시정부가 탄생한지 91주년 되는 해이고 앞으로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 마구 헤 짚고 다니지 아니 하고 거룩한 발자국만 남기신 그 마지막 끝 날도 이제는 61 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굳이 날 수를 헤아려 보는 뜻은 평생에 방략(方略)을 가지고 살아가신 선생님의 큰 뜻의 날 수들이 이미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그 어느 것 보다도 소중한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 있기에 다시 짚어 보는 것입니다.

1896년 2월,

나라는 있으되 방략이 없었고, 허울만 있으되,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왕권 대신, 21살의 젊은 나이로 혼신의 용기를 가지고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짚어 지셨던 안악군 치하포의 방략, 1906년 학교(해서교육회)를 세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이 없는 권력은 허상이다>라는 방략으로 평생을 노도처럼 살아오신 선생님의 행적이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표준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말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셨습니다. 모두가 다 아전인수 격으로 선생님을 농락하고 이용 했을 뿐, 소위 말하는 전투적인 사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언자의 가시 밭 길, 고난의 험한 역정이셨던 걸 저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안두희가 선생님 가슴에 총을 겨누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 <쏘아라, 이놈!> 하시면서 호통 치시던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걸 소상하게 짐작하고 계셨던 걸 저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정녕 말로

만 되는 것이 있었더냐?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만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나를 굽히고, 나를 누이는 희생, 그 절망처럼 보이는 거룩한 희생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것 말입니다. 요괴 인간의 총뿌리 앞에 가슴을 헤쳐 보였던 백범, 독살스런 군중 앞에 몸을 드러내었던 간디, <다 이루었다>로 예언을 실천한 구원자의 그 치열한 사명만이 오늘도 우리의 변함없는 표준이며, 이것 말고, 어디서, 누구에게, 또, 그 무엇을 가지고 이 지고지선의 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고 반대 하셨던 분단과 반목, 정파적 이익이나 권력의 무자비한 전횡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 타락의 근원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두렵고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보셨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의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상관념에 찌든 우리들 의식 속에서, 백정보다도 낮은 천민을 자처하신 백범선생님, 저희가 지금, 비록 반대와 대결로 자중지란의 곤죽을 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대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대한 적도 있다는 선생님의 표준이 오늘도 저희들의 무모한 삶 속에 명철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는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를 낙으로 삼기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쏟을진대 30년이 못하여 우리민족은 괘목상대<刮目相對>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몸소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거니와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거가 아닌 미래 속에 살고 계시면서, 죽어도 썩지 않을 예언자의 표상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생생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제 비록 30년 보다 좀 늦기는 하였지만 선생님이 소원을 다시 기리며 <꿈을 따르는 자에게 월계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놀라운 꿈을 향하여 다시 또 한번, 마음을 크게 고쳐 먹겠아오니 심려 놓으시 옅소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종종 뵈울것을 기약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영후 / 탈렌트·전통공연예술기능재단 이사장

내 마음속의 독립운동가

- 영화배우 오지혜가 외할아버지께 띄우는 편지 -



▲ 영화배우 오지혜씨. 현재는 MBC 표준 FM에서 <문화야 놀자>를 진행하고 있다.

할아버지, 저 지혜예요.

할아버지 셋째 딸 태봉이의 맏딸 지혜요. 윤태봉이라는 엄마의 본명, 정말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사람들은 윤소정이라고 해야 알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의 원래 이름을 듣고 촌스럽다고 놀렸던 생각이 나네요. 아...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제일 예뻐하셨던 우리 엄마, 이제는 슬슬 문화계에서 '원로' 소리를 듣기 시작한 할머니가 됐어요. 하긴 제가 사십이 넘었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아직도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눈물을 흘리세요. 이번에도 '내 마음 속의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를 쓰라 하길래 난 외할아버지한테 쓴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글썽, 그 말만 듣고도 우시는 거 있죠. 대체 할아버

진 우리 엄마에게 어떤 아버지셨길래 돌아가신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저렇게 엄마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이 땅의 영화사에 큰 뿌리 역할을 하신 한국현대영화 초기 감독님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할아버지 얘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본 순사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셔서 손가락도 부러지시고 척추가 휘어서 항상 약간 기울어진 자세로 다니셨기에 별명이 '6시5분전' 이었다는거, 영화도 결국 대중을 선동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판단하셔서 독립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하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 묘가 기독교인 묘지에서 독립유공자 묘지로 이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산소에 성묘하러 갔던 게 생각나요. 외할머니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실 때 마다 할아버지 앞에 앉으셔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신지 아주 오랫동안 할아버지랑 대화를 나누셨더라고요. 그

리고 자꾸 자꾸 우셨구요.

맘 같아선 할아버지가 진짜 이 편지 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 근황만 적고 싶지만 이 글은 여러 사람들이 봐야하는 글이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얘기해야겠네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올 엄마의 할아버지 윤득주 선생은 평양의 주전 기술자이셨는데 동학혁명에 가담하신 말하자면 동학운동가시죠. 할아버지 애길 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영화<아리랑>을 만드신 나운규 감독님과요. 요새 말로 '절친' 사이셨구요. 나운규 선생의 아버님 역시 두 분의 고향인 회령에서 독립투사를 기르는 시민학교를 만드신 분이니 두 분의 성장과정이 어땠을지 눈에 보이는 듯 해요.

그렇게 빼앗긴 조국에 대한 한과 열정으로 뭉친 두 청년은 북간도에 있는 명동 중학교에서 본격적인 독립군으로 성장하셨어요. 육십만 교포가 살고 있던 그곳의 학교인 명동 중학교는 교과서 공부보다는 군사 훈련을 더 많이 시킨 학교로 유명했다죠?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두 분은 독립군들이 두만강을 건너 회령 경찰서 수비대를 공격한 소위 도판부 사건에서 회령과 청진 사이에 있는 무산령 터널을 폭파하고 전신, 전화 시설을 끊는 일을 맡게 됩니다. 훗날 두 분이 서울의 연희전문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 일로 고등계 형사에게 붙잡히셨죠. 이때의 옥고로 돌아가실 뻔할 정도로 오래 앓으셨단 얘기 들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젊음과 자유를 유린당하고 목숨까지 바친 애길 들었지만 그 중의 한 분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 사실이 역사를 그저 흘러간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일'로 느껴지게 했더랬죠. 제 인생의 커다란 자부심이 되기도 했구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화같은 연애담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진 가난한 독립운동가로 그야말로 일제세상에서 '찍힌 청년' 이었고 외할머니는 부잣집 친일지주의 딸로서 두 분이서 비밀연애를 하셨다구요. 정략결혼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외할머니가 담을 넘어 야반도주를 해서 할아버지께 달려갔고 두 분이서 그길로 도망을 가셔서 어느 허름한 중국집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외로운 결혼식을 올린 이야기... 엄마로부터 하도 들어서 이제는 제가 마치 영화로 본 것처럼 눈앞에 그려져요.

1940년 대 조선총독부는 조선 영화령과 조선 영화주식회사, 조선 영화인 협회를 만들어서 이 땅의 영화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억압했고 할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많은 영화인들이 어용단체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했었다죠. 하



▲ 윤봉춘 선생의 칠순잔치 때의 모습.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선생은 광복 후 이른바 '광복영화를' 제작하였다.

지만 할아버진 끝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할머니와 함께 경기도 양주에 은둔하면서 산곡학원이란 것을 차려 남몰래 학생들에게 우리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 이 대목에서 전 목에 큰 가시가 하나 걸린 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 이 땅이 광폭한 현대사를 써나가면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 하지 못해 아직도 나라꼴이 그닥 자랑스럽지 못한 형국이 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구요. 허면, 그렇게 '생각' 했다면, 할아버

지 같은 선배 지식인들의 삶의 천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건만, 제 삶은 참 후져요. 이 땅의 역사가 억압과 수탈의 회오리 바람 속에 처해 있을 때 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며 문화지식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신 많은 분들 저는 그 분들의 삶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저로서 다른 예술가들 보다 더 제대로 살아야 하지만 할아버지 같은 용기가 제겐 없어요. 기껏해야 글 몇 줄 쓰고 어줍잖은 시위 몇 번 한 거 밖에 없을 뿐, 제 삶을 걸 자신은 없네요.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는지, 어떤 신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꼭 여쭙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쩔 땐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참다못해 작은 시위라도 할라치면 주위에서 밥 줄 끊긴다고 걱정을 하세요. 그럴 때면 엄마는 할아버지 애길 해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면데요?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니다."라구요. 그런 말씀을 하신 할아버지도 자랑스럽지만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식에게도 그게 맞다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엄마도 대단하신 거죠. 참, 평상시에 많이 보수적이셔서 저랑 많이 부딪히셨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깐 할아버지의 셋째 사위 오현경 선생도요 이번에 정부가 국립극단을 민영화 하겠다 하고 예술 감독을 외국사람으로 하겠다 발표한 거에 화가 나서서 원로대표로 문화부에 일침을 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때요. 이만하면 할아버지 후손들로서 많이 부끄럽진 않은 거겠죠?

제가 열 살 때쯤에 돌아가셨으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것들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온전히 직접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네요. 돌아가실 즈음 외할아버지 댁이 마침



▲ 왼쪽이 여섯 살 오지혜. 오른쪽은 모친이자 윤봉춘 선생의 딸인 영화배우 윤소정씨. 엄마가 늘 그리워했던 아버지 윤봉춘 선생은 이제 손녀가 그리워하는 독립운동가로 남았다.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몇 달을 저희 집에 계셨드랬죠. 그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셋째 외손녀인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부엌의 식탁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말랐지만 키가 크고 약간 외국사람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지 말씀을 아주 작게 천천히 하셨더랬는데 열 살이 채 안 된 저에게 태양과 지구의 공전 자전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손을 주먹 쥐시고 “지혜야, 이게 태양이라면 지구가 이렇게 혼자 천천히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라는 설명과 함께 주먹 쥔 손을 열심히 돌리시며 세계 우주의 운행원리를 이해시켜 주시려 애쓰시던 모습말예요. 통증으로 많이 힘들셨을 텐데도 손녀에게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던 그 모습... 아... 이십대 때도 삼십대 때도 가끔 할아버지 얘기 하면 이 장면 애길 했는데 그 땐 그저 덩덤히 웃으며 애길 했더랬어요. 그런데 사십이 넘고 내 아이가 그 때 제 나이만해 진 지금은 눈물이 나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영화를 만드셨던 시절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아직도 영화인들 사이에선 영화 <유관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만드신 분이 나의 외할아버지라고 하면 다들 저에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영화인이셨는지를 얘기해줘요. 시골 마을에서 강렬하긴 했지만 아주 짧은 시기에 스러져간 유관순을 할아버지가 영화로 불러내셔서 온 나라에 알리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동시대의 예술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작업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작품을 세 번씩이나 만드셨어요. 전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할아버지 시나리오를 공부했어요. 그 때 느꼈던 그 자부심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구요. 나중에 영화행정일을 하셨을 때도 지금의 스크린 쿼터의 전신이 된 외화수입규제방안, 한국영화인세인하, 촬영기자제 수입인세인하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해결해놓으셔서 60년대의 우리 영화가 황금기를 누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참, 제 남편도 영화감독이예요. 할아버지의 까마득한 후배네요. 요즘 한국 영화가 아주 힘들어요. 할아버지 같은 영화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별로 신통치 않네요.

할아버지, 우리 부부의 평생 소원은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소리 같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늙어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요. 젊을 때 멋있는 소린 누가 못하겠어요. 늙어서도 젊은 생각 젊은 행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지만 멋진 일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말예요. 할아버지 손녀 지혜가 그렇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제 마음 속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지만 제 마음 속의 선배 예술가이시니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모두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평안하세요.

2010년 5월 셋째 외손녀 지혜드림.

오지혜 / 영화배우

순국선열·애국지사

58명 포상

국가보훈처는 지난 11월 17일 '제 7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때 만주 서간도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이응해 선생을 비롯한 58명의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36명(독립장 1명, 애국장 18명, 애족장 17명)과 건국포장 3명, 대통령표창 19명이다. 여성은 2명 포함됐고 생존자는 없다. 훈장·포장·표창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2010년 현재 대한민국장 30, 대통령장 93, 독립장 807, 애국장 3,687, 애족장 4,564, 건국포장 869, 대통령표창 2,217명 등 총 12,267명에 이른다.

◎ 건국훈장 독립장

이응해(만주방면)

◎ 건국훈장 애국장

강명희(만주방면) 강정하(만주방면) 권재관(국내항일) 김건규(의병) 김석현(의병)
문남규(만주방면) 박제웅(임시정부) 박흥림(만주방면) 배방우(3.1운동)
송장춘(만주방면) 이기포(만주방면) 이선찬(만주방면) 이창진(만주방면)
이필현(중국방면) 장하청(만주방면) 최봉주(만주방면) 하영옥(의병) 허원중(만주방면)

◎ 건국훈장 애족장

강국보(3.1운동) 김갑룡(국내항일) 김삼출(국내항일) 김성규(3.1운동)
김중희(국내항일) 김찬오(3.1운동) 김택룡(국내항일) 선우안(광복군) 윤천각(3.1운동)
윤태선(임시정부) 이길구(임시정부) 이창희(국내항일) 전용규(국내항일)
조원갑(국내항일) 차명학(만주방면) 최주억(3.1운동) 홍사철(3.1운동)

◎ 건국포장

김영만(국내항일) 이정호(국내항일) 허필(만주방면)

◎ 대통령표창

강혁주(3.1운동) 김신희(3.1운동) 김용인(국내항일) 김응록(3.1운동) 김찬승(3.1운동)
박태인(3.1운동) 백남규(3.1운동) 소진석(3.1운동) 승이진(3.1운동) 신경호(3.1운동)
엄철중(3.1운동) 원호이(국내항일) 유기원(3.1운동) 이대균(3.1운동) 이명시(3.1운동)
이창환(국내항일) 장기창(3.1운동) 최경민(만주방면) 최학길(3.1운동)

상기 포상자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본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02-3210-0411/042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제3기 임원명단

지난 2010년 10월 22일 (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에서 제 3기 임원이 선임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임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1. 회장 _ 김자동

2. 임원

1) 부회장(11명)

김정록(김상덕선생 자)	남만우(광복회 부회장)	김호진(고려대 명예교수)
박재승(前 대한변호사회회장)	이종찬(前 국회의원, 우당기념관 관장)	이항중(이상룡 선생 증손)
이해동(목사, 前 덕성학원 이사장)	임재경(前 한겨레 신문사 부사장)	정관훈(한국방역협회 이사장)
주섭일(언론인)	함세웅(신부,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이사(58명)

공성진(국회의원)	곽태원(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권영관(권태석 선생 자)
권영길(국회의원)	김광림(국회의원)	김삼웅(前 독립기념관장)
김선현((주)오도 부회장)	김성희(귀암 김용중 선생기념사업회장)	김승재(남북민간교류협회 공동대표)
김우석(우사 김규식 연구회)	김원규(동원대학교 교수)	김학민(前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노시선(어린이재단 부회장)	노웅래(前 국회의원)	류시경(민족뿌리회 상임의장)
문학진(국회의원)	민영백(민필호 선생 자)	박의란(박건웅 선생 자)
박정근(MBC 통일방송 협력단 단장)	박창기(프락시스 사장)	빙인섭(임정기념사업회 前 사무처장)
서홍관(국립암센터금연클리닉 책임의사)	심재권(前 국회의원)	안병원(前 대한석유협회 회장)
여익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	염락원(염운동 선생 자)	원영애(독립극장 대표)
원혜영(국회의원)	원희룡(국회의원)	유기홍(前 국회의원)
유인택((주)기획시대 대표)	윤경재(윤기섭 선생 자)	이규중(이진영 선생 자)
이두엽((사)호남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이상준(골든브릿지 대표)	이성현(국회의원)
이영후(탈렌트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	이원혁((주)티브이유니온 대표)	이일선(본회 사무처장)
이정재(남서울대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이종걸(이회영 선생 손, 국회의원)	이창중(삼성메디컬센터 원장)
이화영(前 국회의원)	임종인(前 국회의원, 변호사)	정동익(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만기(고창코리아 대표)	정철승(법무법인 더 펴 대표변호사, 윤기섭 선생 손)	
정희천(희성인베스트 회장)	조세현(의병정신선양회 부회장)	조영빈(아주경제 기자 : 청년이사)
조용환(변호사)	주철기(前 프랑스대사)	천정배(국회의원)
탁무권(노원문고 대표)	황용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집행위원)	황인순(광복회원)
황호순(전문건설인협회 前 회장)		

3) 감사(2명)

이동철(이원대 선생 자)	김석민(회계사)
---------------	----------



2010년도 임정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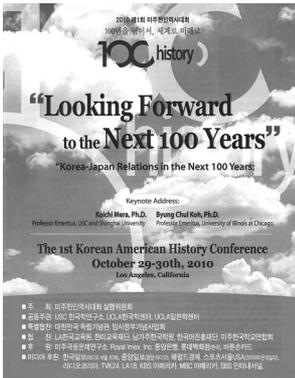
지난 12월 27일(월) 본회 송년회가 중구 정동비페에서 열렸다. 독립정신 답사단의 6기 기장인 황영규 군(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 70여 명이 한 데 어울려 지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본회 김자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주세영 전 산악회장(고척고등학교 교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고, 식사와 함께 임시정부에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했던 김해나 양(독립정신 6기·안양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은 “답사에서 함께 했던 언니, 오빠들을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다”며 이날 송년회의 느낌을 전했다.

2010 제1회 미주한인역사대회 열려



‘100년을 넘어서,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제1회 미주한인역사대회’가 열렸다

미주한인역사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미주한인역사대회는 2010년 10월 29일과 30일 USC

캠퍼스와 가든스위트호텔, LA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미 주한인역사대회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기념해 지년간 10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계획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커뮤니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역사편지쓰기 캠페인’을 진

행했다.

미주한인역사대회가 시작되었던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USC한국학연구소와 UCLA한국학센터가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가 USC캠퍼스(Doheny Library, 2nd Fl.)에서 ‘미래를 여는 한 일관계’주제로 열렸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한국교육원에서는 차세대 포럼과 역사편지쓰기 캠페인 시상식이 열렸다. 역사편지쓰기 대상은 이용범, 임시정부기념사업회상은 이창률씨가 수상했다. 미 주한인역사대회 추진위 정용봉 회장은 “미주한인역사대회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인커뮤니티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향후에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회 임종국상에 문준영 · 야노 히데키 씨



지난 11월 10일(수)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술부문)와 야노 히데키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사회부문)을 선정했다.

문 교수는 책 <법원과 검찰의 탄생>을 통해 한국 사법의 관료적 폐해와 비민주성의 연원이 일제 식민

시기에 있음을 논증하며 사법개혁과 법조 민주화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일제 치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 활동과 소송지원, 위령사업, 보상운동을 벌여온 공을 인정받았다.

임종국상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계기가 된 <친일문학론>(1966)을 쓴 임종국 선생(1929~1989)의 업적과 실천적 삶을 기리고자 2005년 만들어졌다.

독립정신 산악회 소식

독립정신 산악회는 지난 11월 27일(토) 마지막 산행으로 경북 상주에 위치한 채의진 고문의 집을 방문했다. 언제나 독립정신 산악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채의진 고문의 건강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산행은, 김원규 산악회장을 비롯한 산악회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채의진 고문과 산악회원들은 오랜만에 만

나 회포를 풀 수 있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들의 친목이 더욱 돈독해지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다음 산행은 2011년 3월에 인왕산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산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자랑스럽다!

안중근 의사 자료집 다섯 권

- 순수 민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순국의 얼 -



안중근 의사는 1909년 3월 2일 러시아령 노브키에프스크에서 함께 의병활동을 하던 김기룡, 황병길 등 12명이 모여 단지회(斷指會, 일명 단지동맹)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안 의사는 일제의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하고 3년 이내에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한다고 맹세했다.

그해 9월 안 의사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동보>와 <대동공보>를 통해 이토가 북만주 시찰을 명목으로 러시아의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하여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안 의사는 하얼빈과 채가구(蔡家溝)를 거사 장소로 설정하고, 채가구에 우덕순과 조도선을 배치하고 자신은 하얼빈을 담당했다.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가 코코프체프와 열차에서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환영군중 쪽으로 가는 순간 권총을 쏘아, 이토에게 3발을 명중시켰다. 이어서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川上俊彦),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森泰二郎), 만철(滿鐵) 이사 다나카(田中清太郎) 등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대한만세'를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러시아 검찰관의 예비심문과 재판과정에서 안 의사는 자신을 '한국의병 참모총장'이라고 밝히



고, “이토가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의용군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며, 나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니”라고 거사 동기를 당당하게 밝혔다. 안 의사는 러시아 관헌의 형식적인 조사를 받고 곧 일제에 인계되어 뤼순 감옥으로 옮겨졌다. 안 의사는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동안 “나는 의병의 참모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했고 참모중장으로서 이토를 죽였으니, 이 법정에서 취조 받을 의무가 없다”라고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을 전쟁포로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제 검찰에게 이토의 죄상으로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 1905년 11월 한일협약 5개조를 체결한 일, 1907년 7월 한일신협약 7개조를 체결한 일, 양민을 살해한 일, 이권을 약탈한 일, 동양평화를 교란한 일 등 15가지를 제시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밝혔다. 당시 국내외에서 변호 모금운동이 일어났고 안병찬과 러시아인 콘스탄틴 미하일로프, 영국인 더글러스 등이 무료 변호를 자원했으나 일제는 일본인 관선변호사 미즈노[水野吉太郎]와 가마타[鎌田政治]의 변호조차 허가하지 않으려 했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마침내 사형을 당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장렬히 희생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은 당시 동북아 국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우선 일제로서는 그들의 제국주의 ‘영웅’이 일개 식민지 청년에게 사살 당했으니 그 국민적 충격이 어땠겠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해 여름 국권을 찬탈당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조선 민중에게는 크나큰 긍지와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또 중일, 러일 전쟁에서 일제에 굴욕적으로 패배한 중국과 러시아 또한 동양평화를 짓밟는데 침병의 역할을 해온 이토의 사살에 내심 환호 작작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최고 수뇌 인물이, 중국 영토 내의, 러시아 군대가 관할하는 곳에서, 러시아 고위관리와 회담을 마치고 함께 열병하다가, 한국인에게 사살 당한, 네 나라 정부 또는 민족이 관련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중근 의사 자신이 옥중에서 집필한 <안응칠 역사>, <동양평화론> 등 유고와 유묵, 러시아 측의 심문조서, 일제의 심문조서, 공판기록,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언론보도, 안 의사의 동지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의 공판기록 등 엄청난 기록이 위 네 나라에 산재해 있었다.

이러한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들이 어렵사리 집대성되어, 제1권 <안중근 유고집 - 안응칠역사, 동양평화론 등>, 제2권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제3권 <안중근 신문기록>, 제4권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신문기록>, 제5권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등 공술기록>이 나왔다. 순수 민간단체인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에서 27권으로 기획하여 우선 1차로 다섯 권이 발간된 것이다. 십 수 년간 안 의사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에 천착해 온 신운용 박사와 안중근연

구소 소장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의 노고, 그리고 함세웅 이사장의 열정의 소산이다.

2010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지 만 100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금년 3월 26일이면 안중근 의사가 이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지 만 100년이 된다. 사형 집행에 앞서 안 의사는 면회 온 두 동생에게 조국 광복 후 고국 산천에 유해라도 옮겨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지만, 이장은커녕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하여 효창 공원에는 안 의사의 가묘만이 초라하게 있을 뿐이다. 1945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최근까지 중국과 남한은 일체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 발굴과 중국 측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음은 십분 이해가 된다. 그 점에서는 러시아 측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 수교가 이루어진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정부가 유해 발굴 노력 이외에 안 의사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 발간에 적극 관심을 보인 일은 없다.

더구나 약간의 예산과 인력만 투입하면 가능했을, 안 의사 자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과 한국의 자료 수집, 발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의 얼을 기리자고, 그 정신을 '숭모' 하자고 한다. 4·6배판 1천여 페이지가 되는 자료집을 27권이나 민간단체가 모두 부담하여 발간하기는 너무 힘이 부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집 발간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멀쩡한 안중근기념관 때려 부수고 막대한 예산 들여 기념관을 새로 짓는단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순국선열 숭모도 삼질로 하는지, (㉔)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0년 11월, 1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1월	12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10,000	10,000
강만길	20,000	
강재욱	20,000	20,000
공성진	30,000	30,000
곽태원	50,000	50,000
권순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김광선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김동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김선근	10,000	10,000
김성근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연실	10,000	10,000
김영림	90,000	30,000
김용덕	2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김원유	50,000	50,000
김 위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김자동	100,000	100,000
김재홍	10,000	10,000
김정욱	50,000	50,000
김중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김진경	15,000	5,000
김진모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김진한		50,000
김진현	50,000	50,000
김판수	5,000	5,000
김학근	10,000	10,000
김현숙	10,000	
김호진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류동연	5,000	5,000
류시경	30,000	30,000
민항선		50,000
박경국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박두근	10,000	10,000
박이영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박익란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박종기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서영훈	30,000	30,000

회원명	11월	12월
서용식	10,000	
서종관	30,000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송재용	30,000	30,000
신명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안영선		10,000
안영찬	5,000	5,000
양인선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염기남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오화수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원영애		30,000
유기수		10,000
유순아	10,000	
유원목		20,000
유중현	100,000	
윤경자	30,000	70,000
윤여천	1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윤지현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이기범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이병규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이상배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이영우	10,000	
이영춘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이원희	100,000	100,000
이응국	5,000	5,000
이일선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이정재	50,000	50,000
이종건	10,000	10,000
이종락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이진구	10,000	10,000
이창복	20,000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이향중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호헌	20,000	20,000
이화순	30,000	30,000
인순창	30,000	30,000
임삼조	10,000	10,000

회원명	11월	12월
임재경	5,000	5,000
임정대	30,000	30,000
임진택	5,000	
장은기	20,000	20,000
장홍(장두영으로 발행)	20,000	220,000
전창일	20,000	20,000
정동익	30,000	30,000
정만기		30,000
정범구	30,000	30,000
정철승	30,000	30,000
정환기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조세현	20,000	20,000
조영빈		5,000
조용준	30,000	30,000
조용환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조희환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주정현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천정배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최인국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최정호	10,000	
하수정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허석현	5,000	
홍순권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2010년 11월, 12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최기창	10,000	10,000
차영조	10,000	
유중하	10,000	

2010년 11월, 1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도 오티오	6,000,000	6,000,000
(주)아팩철강	2,000,000	2,000,000
전봉성		100,000
송년회 모금함		990,000
내일신문		2,000,000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민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